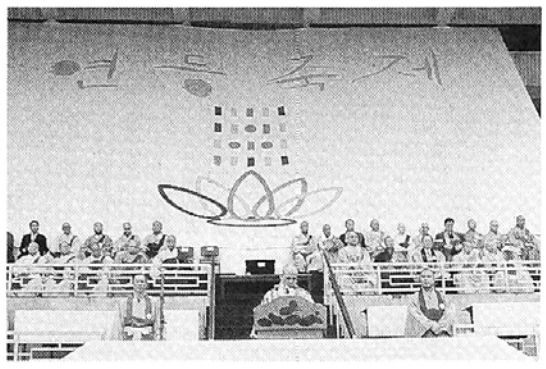
행사 '신선' …국민축제로 진일보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며 … 기자방담

일요일 행사진행 교통불편 덜어
그늘진 곳에 연등 더 많이 밝혀야



◇올해 처음 열린 연등축제는 시민의 참여유도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대회단상 모습. 〈고영배 기자〉

-김영삼대통령은 신한국당총재이름으로 지난해는 전국 3백70여 사암에 연등을 달았으나 금년에는 2백여개가 더 많은 5백40여 사암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많은 등을 단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심달래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연등 늘어 눈길

-일요일을 선택해 연등축제를 한 것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준 효과를 가져와 예년의 토요일 제등행진보다 좋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사를 한 곳으로 집약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나 잠실운동장 등에서 포괄적인 축제를 갖고 제등행진만 도로에서 하되 한쪽 차선만 이용한다면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이 훨씬 줄어들 것이란 의견입니다.

-부처님오신달 5월을 맞아 각 학술단체에서 연 불교관련 세미나는 어느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세미나를 비롯 서울에서만 모두 5개 단체가 불교관련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의 현주소와 미래불교의 방향 제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세미나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 불교문화전반을 다룬 세미나입니다. 미술 문학 음악 성보 등 4주제로 나누어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불교문화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모색해 본 것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우리 불교문화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듣는 청중이 너무나 적어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매년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지만 발표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청중들이 적은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와 더불어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행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사들이 한꺼번에 열리다 보니 홍보나 참여율에서 제대로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구나 불국사 열린음악회와 부모은중송 공연 등 일부 음악회는 공연장 좌석수보다 훨씬 많은 표를 뿌리는 바람에 보려고 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지요.

-어린이 불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날과 아기부처님오신날이 함께 있는 부처님오신달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불서들입니다.

방송사 봉축특집 다양

-다양한 공개방송과 생생한 현장중계방송은 예년과 비교해 돋보였습니다. 안산, 부천등에서 열린 BBS의 공개방송에는 많은 불자와 주민들이 성황을 이뤘고, 지난 19일 연등축제거리 종묘공원에서 열린 BBS '온누리에 자비를' 공개방송, 등도 부처님오신날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대중포교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KBS, SBS, MBC, EBS 등 공중파 방송들이 월하스님대담, 남방불교 기획프로 등 작년에 비해 자체제작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최초로 부다피아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불자들이 한국봉축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고 자국의 봉축소식들을 보내오는 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전세계 불교정보교류 화합의 원년으로 자리매김됐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선사들(Zen Ancestor)'과 '불교도우회(Friend of Buddhism)' 홈페이지는 부다피아를 통한 한국의 봉축행사소식을 전자게시판에 올려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다피아를 통한 한국과의 불교정보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범패시연으로 특별상까지 수상한 태고종이 연등축제에 불참했습니다. 29일 월드컵유치기원법회 행사준비로 바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내심 안으로 종단의 스님들이 의전상 홀대받는 것에 불만이 커 불참했다는 후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행사니 만큼 범시민적 축제로 유도하는 마당에 모든 종단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봉축위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사 청소년음악회 호평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지난 21일 금산사에서 전북불교총연합회주최로 청소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녹색지대 이예린 룰 걸 심수봉씨등 인기정상의 연예인과 1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미약한 전북불교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식행사는 아니었지만 연등축제 회향식 본공연이전에 20여분간 무대밑에서 레크리에이션을 공연할 계획이었답니다. 연등축제 며칠전에 모스님이 행사점검차 나와 누가 준비한 행사냐고 묻더랍니다. 회장인 태고종 법현스님이 준비하고 있다고하자 아무 설명도 없이 공연을 못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봉축 취재반

이경숙차장	이준엽차장
임연태차장	정성운기자
김원우기자	한명우기자
김재경기자	김중근기자
도필선기자	이은자기자
오종욱기자	고영배기자

경 찰 '민감한 사안' 얼버무리기

사찰 방화범 왜 못잡나

최근들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찰 방화사건에 대해 범인을 '왜 잡지 못하나'하는 것이 교계의 첨예한 화두거리다. 그것은 지난 90년 5월3일 발생한 불교 방승국 방화사건과 관련해 사건발생 1년후 모 선교회 소속 법인 한명이 수사당국에 전화를 해 자신이 범인이라는 제보를 해왔음에도 경찰측은 이에대해 아직까지 범인을 검거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훼불사건과 관련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불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이처럼 교계에서 발생한 훼불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찰 방화사건의 경우를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방화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는 항상 불투명했다. 이에대해 불자들은 경찰이 범인을 못잡기보다 안잡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조차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왜 경찰측은 방화사건과 관련한 편향적인 사고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교도들에 의한 훼불방화사건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난 4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의 방화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용의자 자백해도 무혐의 처리 '편파' 의혹

특히 지난 화계사 방화사건 이후 조계종 총무원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화사건이 예전처럼 수사가 종결된다면 종교간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한 뜻도 비춰 경찰수사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방화일지

▲1986. 12. 6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보물 476호)전소. 유력한 용의자로 이교도를 검거 자백을 받았으나 경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1987. 12. 3 제주 대각사와 관음사 화재 발생. 경찰은 양신하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으나 정신이상에 의한 우발적인 소행으로 처리.

▲1988. 9. 25 부산 범어사 화재 발생, 명부전과 보물급 탱화 16점 전소, 화재원인 밝혀지지 않음.

▲1988. 12. 8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전소, 방화로 추정되나 범인은 못잡음.

▲1989. 7. 29 성동구 보타사 대웅전과 요사채 전소, 대순진리회 교도인 용의자 검거했으나 우발적 소행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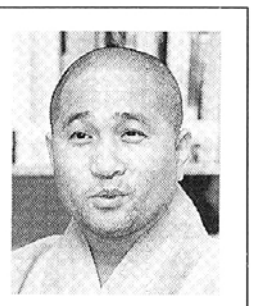
▲1989. 10. 27 대구 보현사 대웅전과 요사채 전소, 경찰은 누전으로 추정 수사종결.

▲1991. 10. 29 서울 봉원사 대웅전(서울시 문화재 68호) 전소.

▲1996. 4. 20 서울 삼성암 종각과 본원정사 대웅전 나한전 전소. 경찰은 방화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중.

시 론

불교시민운동의 방향



영 담
〈석왕사주지 · 부천시민신문발행인〉

불교계의 근대시민사회운동은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조 5백년의 억불로 인한 불교의 산중화와 가깝게는 역대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종단의 파행적 운영을 들 수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종단 바깥에서 한국불교의 침체와 낙후된 현실을 자각한 소수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80년대 사회 전반의 민주화과정에서 불교사회운동 세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종단과 함께 하지않은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해 여전히 일정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지역사찰이 앞장서자

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불교계 시민사회운동은 전반의 사회참여의식의 고양에 힘입어 비로소 일정한 틀을 갖추고 진행하게 된다. 특히 조계종에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면서부터 불교계도 이제 부처님가르침을 혼자가 아닌 이웃과 더불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교육, 환경, 인권, 통일, 복지, 문화,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와 실천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불교계의 시민사회운동은 그 방향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공염불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바른 시민사회운동은 대중의 의식을 계도하고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 부정과 비리등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론화시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즉 다수 국민의 인식전환, 지역주민의 공익과 공공성을 위하여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불교계의 사회참여 방식은 법회나 강연을 통한 문제제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 환경을 파괴하고 업자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도시개발이 진행된다고 하자. 그 지역의 사찰에서 그 도시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그 도시개발은 그대로 진행되고 말 것이다. 사찰이 지역안에 다른 단체들과 함께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끌어내고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도시개발을 저지하는데까지 함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의 해결까지 책임지는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을 위해선 '깨달음의 사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의 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인재들은 우선 사찰의 어린이법회에서 시작하여 학생회, 청년회 등을 거쳐 전문적 불교사회교육기관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도력들이 자기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의 사회참여 공간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각 지역의 단위사찰들이 지역사회문제에 앞장서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교의 사회참여주체들의 우선적 활동공간은 지역단위 사찰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변화의 추세는 정보화, 자동화시대의 엄청난 변화, 발전에 따라 사람이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사회, 문화적 활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문명사적 시대변화를 불교계가 앞서 이끌어 가려면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실천에 역점을 둬야 한다.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지만 종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단위사찰을 주요 활동공간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불교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도 발행할 수 있고 쇼비자단체를 만들 수도 있으며 다양한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단순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실현한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참여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와 이웃 왜 하나인가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이제까지 다른 사회단체들을 보면 실천할 의지도, 역량도 없이 성명서나 내고 마는 일회성, 캠페인성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교의 시민사회운동은 전문성을 기르고 운동의 다양화를 기하며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고 해결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실천적 시민사회운동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왜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인가, 연기법에 의한 이 가르침이 바르게 이해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면 불교시민운동은 사회정화운동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불국정토 건설의 길을 열게 된다. 그것은 곧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통한 보현행원실천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려는 불자들의 참된 사홍서원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속의 불교 ⑮

그의 것을 그에게 되돌려 주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100% 내것은 없다.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100% 내것은 아니다. 그것은 서로 돕고 서로 거들고 서로 의지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사는 한은 그렇다.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크루소가 생산한 농작물도 100% 그의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돕고 땅이 도운 것이다. 햇빛이 돕지 않았으면, 바람이 돕지 않았으면 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순간의 돌풍에 쑥대밭이 되었을 수도 있고 찌는 듯한 더위에 말라 죽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왔으므로 100% 자기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지구도 태양계의 인력에 의해 평형을 유지하며 제 궤도를 돈다. 또 달이 밀고 당기는 힘에 따라 밀물 썰물이 생기고 사람과 물고기들은 그 덕을 본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얼키고 설킨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는 서로 돕는 상보(相補)의 관계란 더 이를 나위가 없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편히 살 수 없고 물건 하나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다면 적어도 수만 명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고로 내가 가진 것, 내것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것 어느 하나라도 100% 내것은 없다.

남의 도움을 받은 만큼, 남의 손을 거친 만큼 내 몫은 줄어든다. 순수한 나의 지분(持分)은 적어진다. 고로 비록 내 수중에 있는 것이라도 100% 내것이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고로 비록 내 소유로 되어 있을지라도 다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도와 준 만큼, 도와 줘서 감사한 만큼 나누어 주어야 하다. 내 소유가 되기 전까지 나도 남을 위해 도울 만큼 도왔으니 내 수중에 든 것은 내 것이라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정한 계산법에 따른 결론인가. 아무도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도 남을 도울 만큼 도왔으니 계산은 이미 끝난 것이라 하자. 그러나 태양의 몫, 바람의 몫, 물의 몫, 흙의 몫…은 어떻게 하겠는가. 정확히 산정했으며 줄 만큼 주었다고 하겠는가. 그런 몫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면 그건 오만이다. 남의 몫에 대해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이기적 계산법과 다르지 않다. 욕심이요, 오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 편의이다. 고로 나누어야 한다. 이웃과 나눠야 하고 사회와 나눠야 하고 자연과 나눠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웃과 나누기를 거부하고 사회와 나누기를 거부하면 이웃도 나와 나누기를 거부할 것이요, 사회도 거부할 것이다. 자연도 더 이상 돕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의 삶은 머지 않아 존재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나눔은 곧 되돌려 줌이다. 그의 몫을 그에게 되돌려 줌이다. 실은 내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것을 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의 것을 그에게 되돌려 줌이다. 잠시 내가 맡았던 것, 내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되찾아 가도록 함이다. 그가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착복하지 않고 돌려 줌이다. 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반환함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그의 것을 그에게 되돌려 주는데 그일에 사회는 박수를 친다. 칭찬한다. 좋은 일 했다고 표창하고 이름 새겨주고 공덕 쌓았다고 한다. 내것 아닌 것을 돌려 주는데 내것 준 것처럼 대접받는다. 또 빚을 진 것인가, 금상첨화인가.

도둑질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협찬 : 윤 태 원